

이 만들어질 것이다.

정부는 이제 더 이상 주도자, 군림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협력자,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사업성이 있는 사업 즉, 민간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과 정부가 직접 추진해야 하는 사업을 구분해야 한다. 사업성이 있는 사업에는 과감하게 민간의 자본과 창의, 효율을 접목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정부와 민간이 동업자가 되어야 한다. 민간자본을 참여시키는 과정에 시장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민간의 자금조달능력과 경영능력을 활용해야 한다.

반복하는 예기지만 민자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 여섯 가지 사항은 확립되어야 한다.

첫째, 민자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부·민간간 파트너십의 구축

둘째,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 수립과 객관적인 대상사업 선정기준 마련

셋째, 적정수준의 수익보장과 공정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넷째, 사업추진과정의 각종 위험의 효과적 관리, 분담

다섯째,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의 양성

여섯째, 명확하고 합리적인 규제와 제한 앞으로 민자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 것

인가? 여기에 대해 확실한 답을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인식을 바꾸고 합리적인 실행프로그램을 만든다면, 그리고 정부와 민간, 대주단 등 관련 주체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한다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다. 인프라시설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 민간투자 활성화는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 큰 틀에서 본다면 민간투자사업은 이제 막 정상궤도에 진입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6년간은 한마디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제도의 틀을 만들며, 민간투자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배우는 시기였다. ‘시작이 빤’이라고 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는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나머지 절반은 앞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할 끓이다.

참고문헌

- 기획예산처·민간투자지원센터, “사회
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시행령 · 기본계획”, 2000. 1.
- 대한상공회의소, “동남아 SOC 민자유
치 경험과 시사점”, 1997. 12
- 대한상공회의소, “민자유치 도로사업 활